

2015년 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3,210,489	전월이월금	4,017,889
지 로	1,493,160	우리은행	6,581,600
국민은행	5,285,000	하나은행	1,105,130
조흥은행	180,010	신한은행	1,530,180
외환은행	422,500	제일은행	255,020
농 협	1,565,000	기업은행	260,000
우 체 국	65,000	지정기탁	45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 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162,80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292,500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30,0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488,55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2,600,910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1,067,25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60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등보육지원, 중병 치료 지원금	
교육비	548,500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2,150,49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총액	23,091,000	잔액(이월금)	119,489

<쉼터 이용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30	1	2	29
베다니아의 집	5	0	4	1
벗들의 집	12	0	0	12
사랑의 집	12	3	3	12
마고네공부방	8	0	0	8



[수능 시즌 - 시험이야기]

찬바람이 불어오고 가로수의 낙엽이 흩날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올해도 이맘때면 온 국민이 긴장하는 날, 바로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루는 날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도, 그렇지 않은 가정도 이 날 하루는 모두 긴장하고 조심하는 날이 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의 출근

시간은 늦춰지고, 경찰서와 일선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심지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까지 조정됩니다. 이 무렵 예배당이나 사찰에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성당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미사, 혹은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일일피정 등이 진행됩니다. 아는 사람 한두 다리만 건너면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기도해줄게..",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이상은 누구나 보내게 되기에 수험생이 없어도 우리집 일이 아닐 수 없고, 나도 덩달아 긴장되는 날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전형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것, 그것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많은 이들이 한 번의 시험으로 승부를 봐야하기에 수험생도, 그를 응원하는 사람도 11월이 되면 조금 예민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수능 시험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룬 경험이 있기에 이맘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사연 하나하나가 옛 기억을 묻고 읊니다. 19살 그 나이 또래까지 살아오면서 날짜를 받아놓고 카운트 할 일이 없었기에 하루하루 'D-00일'하며 시험 당일기를 기다리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긴장감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번갈아가며 초조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때의 마음을 지금 다시 똑같이 꺼내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감정 속에서 분명 아주 큰일이었고 매우 중요한 일을 맞이하는 것임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험 당일도 내가 하느님께 받은 무수히 많은 똑같은 날들 중의 하나였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캄캄해지는,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감정이었겠지만

저 역시도 하루 종일의 시험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며, "이러려고 그렇게 달려왔나?", "생각보다 긴장되지도, 후련하지도 않구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수험표 뒷면에 몰래 적어온 문제번호와 답 번호를 숙주머니 깊은 곳에 간직하고 고사장을 빠져나오며 정답을 맞춰볼 생각에 온전히 긴장을 털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 날은 어제와 같고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올 해 수능일을 전후한 때에도 그렇게 63만 명의 청소년들이 시험을 치루며 우리가 공유하는 여러 느낌들을 나누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힘든 시험을 준비하고 치루는 일에는 온 정성과 애를 쓰면서, 과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험에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는 사람 숫자만큼의 이야기거리가 돌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험에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것인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언제 시험을 치루는지... 잘 알지 못하기에 땅 위의 시험과 경쟁만이 눈에 보일 뿐, 완성과 영원으로 넘어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볼 시험 문제도 미리 가르쳐주셨습니다. "굵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이, 즉 가장 작은이들에게 해준 것을 적으시오."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 치러야 할 시험 문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를 몰라 떨리고 긴장될지언정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마 답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올 해도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대입 수학능력 시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 못지않게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마태오 복음 25장의 문제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63만의 수험생과 그 가정에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2월 후원미사는 21일, 2016년 1월 후원미사는 18일, 2월 후원미사는 22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환자 소식

2015년 10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5명입니다. 그 중 필리핀 환자(남, 31세)에 관한 소식입니다.

천안 소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키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여 김해복음병원에서 허리골절 판정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 의사는 골수결핵이나 골수암일 수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는 필리핀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동체 담당 알프레도 신부는 이주사목위원회로 문의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이 가입되어있었으나 사고 후 회사에서는 이 환자에게 퇴사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곳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퇴사를 선택하여 직장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의료보험 가입할 것을 설명하고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실과 통화하여 수술비 등 지원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한 결과 결핵일 가능성이 있고 척추 뼈 손상으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월 13일 수술하였고 경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환자의 빠른 회복을 후원회원 여러분께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미술수업



덧발가꾸기

4. 베트남공동체 담당 사제 이취임 안내

2003년부터 이주사목위원회의 베트남공동체에서 사목하시던 원고삼(베드로) 신부님께서 말씀의 선교 수도회 본원(로마)의 사무국 사무총장으로 발령받아 10월 말일까지 함께 하시고, 11월 11일에 로마로 출국하셨습니다. 가셔도 주님의 일손으로 큰 몫을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후원회원 여러분께서도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베트남공동체에 같은 말씀의 선교 수도회 소속 웬덕호(세레자 요한)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신부님의 건강한 사목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기부금영수증 안내

201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6년 1월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5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후원회원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선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